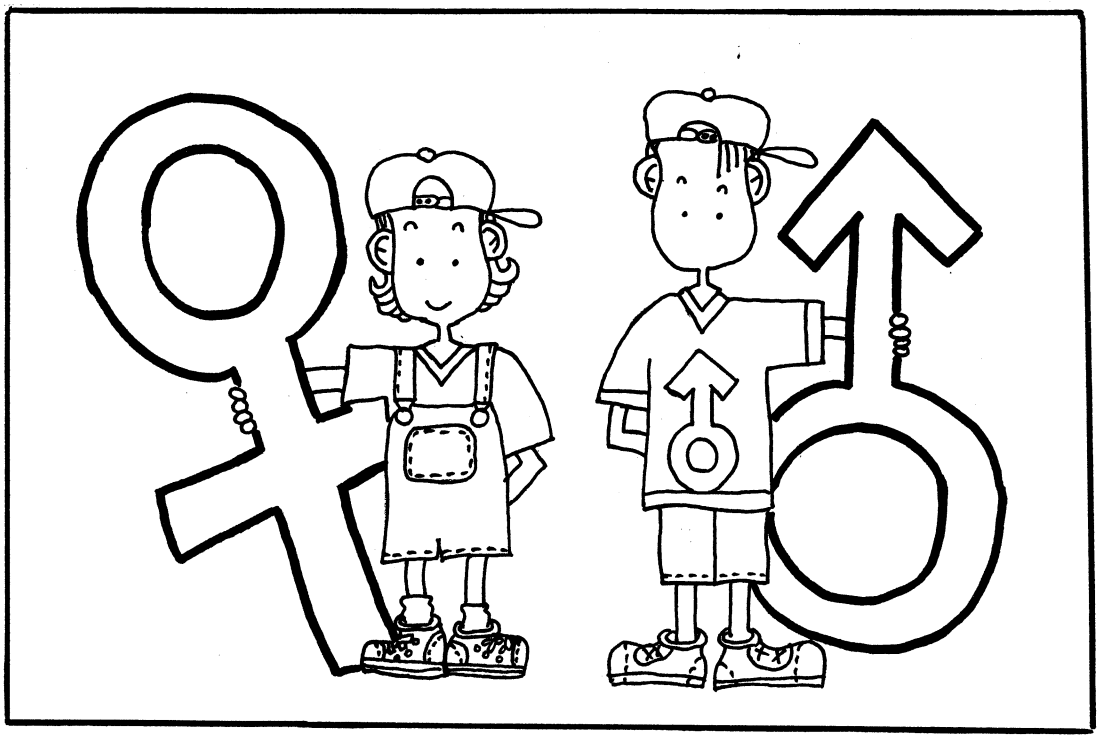
제12대 자 주 적 여 학 생 회

새·로·배·움·터



▦언제 : 1996년 2월 27일~29일

▧어디서 : 계룡산 유스호스텔

▩누구가 : 인문대 여학이

▨누구한테로 : 새내기

글순서

이렇게 진행됩니다....

여는시

인사말

여학생회

여성문제

여연

탁아

책과 비디오

광고

닫는시

어는시

그와 그녀의 차이

그의 책상 위에 가족사진이 있다면 : 아! 참 믿음직하고 책임감 있는 가장이군.
그녀의 책상 위에 가족사진이 있다면 : 흥, 직장보다는 가정이 우선이란 말이지.

그의 책상이 어지럽혀져 있다면 : 일을 열심히 하느라고 그랬을 거야, 바쁘기도 하겠지.
그녀의 책상이 어지럽혀져 있다면 : 참으로 산만한 여자군. 여자가 저래서 어디에 써먹을까.

그가 동료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 요즘 추진 중인 계약문제를 토의하고 있겠지.
그녀가 동료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 수다나 떨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

그가 자리를 비웠다면 : 회의에 참석중일 거야.
그녀가 자리를 비웠다면 : 또 화장 고치러 갔을 거야.

그가 외출을 했다면 : 고객과 만나고 있겠지.
그녀가 외출을 했다면 : 쇼핑하러 간 게 틀림없어.

그가 상사와 점심을 들고 있다면 : 출세하겠군.
그녀가 상사와 점심을 들고 있다면 : 깊은 관계를 맺은 게 틀림없을 거야.

그가 상사에게 비판을 받았다면 : 앞으로 일을 더 잘하겠지 뭐.
그녀가 상사에게 비판을 받았다면 : 저러면서도 뭐하러 회사엘 계속 다니는지 몰라, 남편이 무능력한 모양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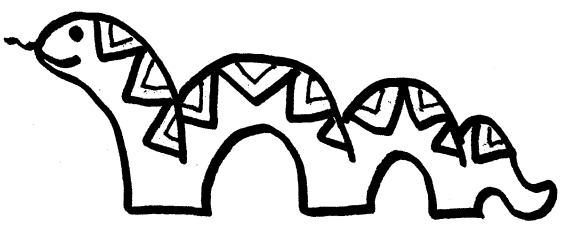
그가 결혼을 한다면 : 좀더 안정되게 일을 하겠군.
그녀가 결혼을 한다면 : 곧 그만 두겠군

인사말

회장님, 회장님 우리 회장님.....

날씨가 다시 추워졌습니다.
이렇게 몹이 추워지는 건
이제 새내기를 맞이할 때가 되었다는 신호인 것 같습니다.
어서 빨리 따뜻한 새내기를 맞아야 이 날씨도 풀릴 것이란 생각이 드네요.
처음 인문대에 발을 딛던 날이 생각이 납니다.
그날 대구가 추웠던 까닭도 있지만 유독 많이 떨었더랬습니다.
집이 촌이라서 낯선 대구가 적응이 안 됐던지....
홀로 떨어져 대학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두려움이란.
그런 두려움으로 대학생활을 시작한지 사년째 되는 해
저는 여학생회장이 되어 새내기 여러분을 맞이하게 되네요.
대학생활 모두가 궁금증의 대상인 새내기에게
또 하나의 궁금증이 더해지겠네요.
'여학생회', 이름에서부터 풍기는 어떤 답이 있을텐네요,
그런에도 아직은 낯선, 친숙지 않은 단어이리란 생각이 듭니다.
이번 새로배움터를 통해서 새내기 여러분께 조금씩 다가가고자 합니다.
일단은 여성문제가 주제이지만 그것을 남학우와 함께,
새내기 전체가 고민해서 풀어가는 과정이었음 합니다.
새로배움터가 진정 새로 배우기, 새로운 의문제기의 계기가 되었음 합니다.
새내기 여러분!!!
새내기답게 역인라음으로 힘차게 살아갑시다.!!!!

제 12대 인문대 여학생회장 김미진



여학생회

여학생회란 무엇일까?

새내기 여러분, 학생회도 있구 여학생회도 있구... 정말 복잡하지요..
근데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랍니다. 학생회와 마찬가지로 여학생회도 여학우들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 세워졌거든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남자,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모순들 속에서 강요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차별들이 숙명,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요, 아니면 아예 그러한 차별들을 모르는 사람도 있구요...
거기에는 교육이라는 부분이 많은 몫을 했죠.
그래서 진리의 상아탑이라고 하면서 가장 민주적이라는 대학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자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여학생들이 이런 모순과 부당함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아내어서 학내 여학생의 지위 향상과 그것들을 실현해 낼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학생회는 태어났고 지금 나이가 12살이래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여학생회는 이상한 조직(?)은 물론 아니에요. 얼마나 밝고 명랑하고 튼튼하게 커나왔다구요.
12살이면 아직 어린것 같지만요. 그렇지도 않아요..
총여학생회는 11살이거든요.. 여학생들이 많은 인문대에서 가장 먼저 태어난 것이죠..
그리고 여학생회의 주인은 누구겠어요...당연히 인문여학우 모두이지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함께 하자구요...알았죠????
또 이런 생각하는 새내기들은 없나요?
그렇다면 남학생회도 있어야 되는것 아니냐고.
근데 여학우의 이해와 요구들을 풀어내는 곳이 여학생회잖아요. 여성들이 남성들을 이기려고 하는 곳이 여학생회는 아니죠. 이기려면 남학생회도 있어야 겠죠. 하지만 여성문제 이야기하는 것이 남성들을 이기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이 아니구요. 여성도 하나의 인간으로써 주체적

으로 서나가는데 있어 부딪히는 것들에 대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성만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닌 인간의 문제로 봐야겠지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남성들과 함께 풀어 나가야 하구요....

자~~ 이젠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가요?

그럼 1년간 여학생회와 함께 하자구요.....!!!!!!!!!!!!!!!

총여학생회도 있다...

과에 여학생회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여학우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과여학생회가 필요하죠.. 그리고 여러 과에서 나온 목소리들을 한자리에서 함께 풀 수 있는 곳이 단대 여학생회랍니다.

그렇다면 똑똑한 새내기들은 눈치를 채셨겠죠???

단대에도 여학생회가 있다면 이러한 것들을 다시 묶어서 함께 풀수 있는 곳도 있어야 겠죠..그곳이 바로 총여학생회랍니다.

그럼 아주 기본적인 것은 알고 시작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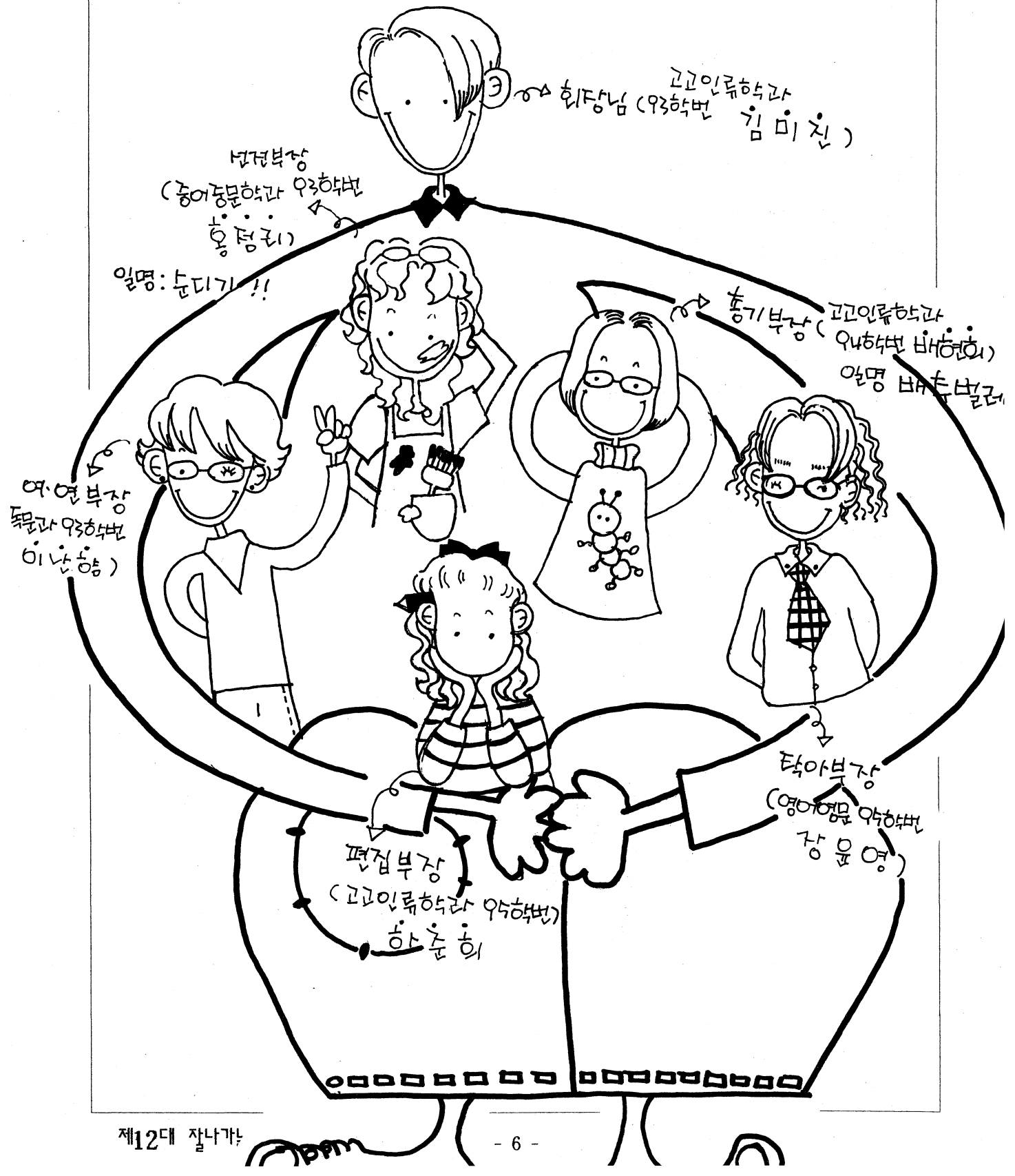
문제1..총여학생회의 회장님이랑 부회장님이름은? 최이향 조진미죠..

문제2..총여학생회의 위치는???? 신학생회관 1층에 있어요...

알았나요??



여학생회의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공?



여성문제

심도있게 한번 보자구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고들 한다. 이제는 여자라고 기죽어 살지도 않고, 능력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돌아서서 생각하면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나 자신의 모습만 돌아보더라도 여전히 인간이기 이전에 여자인 것 같다. 여자다운, 남자다운 차림새, 행동거지, 역할을 끊임없이 요구받고, 나는 거기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누군가가 여성문제라든가 남녀차별이라는 말을 하면 선뜻 동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른게 사실이고, 스스로 열심히 실력을 키우고 노력하면 남자들처럼 유능한 사회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항의를 하거나 화를 낸다면 나만 유난스럽거나 유치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자도 능력만 있으면....'

우리는 이 말 한마디로 모든 여성문제가 다 해결되는 듯이 보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현대는 다양한 여성의 이미지를 창출해 내었고 여성에게 요구되는 역할 또한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엽고 순종적인 딸, 아름답고 애교넘치는 애인, 정숙하면서도 사랑스러운 아내, 싹싹하고 효성스러운 며느리, 희생적이고 자상한 어머니... 이런 종래의 역할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자신감 넘치는 캐리어우먼 이라는 각광받는 또 다른 여성상이 등장하였습니다. '여자의 본분'에 따라 살림에만 전념하는 주부는 남편과 자식에게 무시당하기 일쑤입니다. TV에서도 이제 활기차고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펴는 여성이 신세대 여성이고 매력적인 여성이라고 떠들어댑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아직도 많은 여성들은 잔심부름과 단순업무에 시달리고 남자보다 적은 월급을 받으며, 조금만 자기 주장을 해도 잘난체한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더구나 아이가 있는 여성이라면 집과 직장 사이에서 매일 종종걸음을 쳐야 합니다.

여성차별이 웬말이냐는 이 시대에 여성은 차별받지 않으려면 수퍼우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와 장소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외모와 성격까지 변신을 거듭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순된 여성상이

혼재하는 가운데 여성들 자신은 아무 혼란도 느끼지 않을까요? 원하기만 한다면 남성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남성들도 여성과 함께 나누어야 하는 짐을 혼자서 메고 가느라 무척 힘들어 합니다. 집안의 가장으로 직장의 상사로서 어렵거나 힘든 내색을 할 수 없으며, 강한 남자의 이미지를 지켜가느라 끙끙거리고 있지요.
여성문제들이 단순히 여성들이 억압과 차별만을 이야기 한다면, 그건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여성문제가 있으며, 그 문제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여성 뿐만이 아니라 남성이니까요.
따라서 여성문제는 남성문제를 유발하고 또한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정의할 수 있겠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성문제라는 것을 단순히 여성들의 불만, 여성들이 남성을 적대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 공히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임을....



어언

함께 생각해 봅시다....

===소나기의 여주인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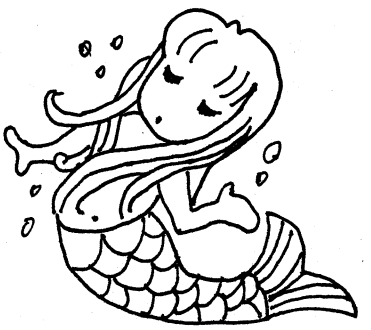
국어시간에 배운 황순원의 <소나기>라는 단편소설 아시죠?
그속에 나오는 소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녀는 흰 얼굴에 꽃 한 송이도 제대로 꺾지 못해 다치며, 소나기에 젖어 파랗게 질린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소나기 한 번 맞은 것이 원인이 되어(워낙 병약하긴 했지만) 죽어 버리고 맙니다. 반면 처음에 소녀의 도시적인 분위기에 주눅 들었던 소년은 연약하고 가냘픈 소녀를 치료해 주고, 꽃을 꺾어다 주고, 옷을 벗어 덮어 주고, 불어난 냇물을 업어서 건네 주는 당당한 보호자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모습들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이들의 사랑이 순수하고 아름답게 보이셨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조금만 달리 생각해 보면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글을 읽고 배우는 많은 사춘기 소녀들은 자신이 지나치게(?) 튼튼하고 잘 넘어지지도 않으며 또래의 남자 친구들이 업어 주기에는 너무 무겁다는 사실을 비관하여 급기야 살을 빼기 위해 밥을 굶어야 하는 비극이 생긴다는 겁니다. 병약해 보이기 위해서. 혹은 청순 가련해 보이기 위해서.....
이러한 '약한 여성, 강한 남성'이라는 불평등한 성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는 교과서의 내용은 알퐁스 도데의 <별>의 주인공인 스테파네트와 목동 사이에서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눈은 새로운 세계를 접하는 호기심과 진지함으로 가득차지만 한편으로는 교과서 속에 나타난 청순 가련한 여성과는 다른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한숨을 쉬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책속의 모습들은 우연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History (His story?)를 고집하는 남성 우월적인 사회의 문화가 교과서를 통해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사회에서 남녀의 전통적인 성 역할의 벽은 무너지고 있으며, 사회많은 부분에서 남성보다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여학생인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할 역사는 His story가 아니라 진정한 인간 모두의 역사가 아닐까요??

여연은 뭐하는 건데요?!?!

여연은 "여성문제 소모임"을 줄여서 말하는 거랍니다.
위에서처럼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차별속에서 자라왔답니다.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도 조금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엄청난 사실들을 알 수가 있죠. 위의 이야기도 그렇답니다.
우리가 어릴때부터 읽어온 동화에는 여자는 이렇게 해야하고 남자는 저렇게 해야한다는 것들이 무척이나 많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그렇게 길들여지고 커왔습니다.
여연(여성문제 소모임)이라는 곳은 바로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니고 있는 '여자'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길들여진 많은 것들을 올바른 시각으로 바라보며 새롭게 깨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너무 거창한가요????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은 모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조차두요..
누구나가 고민하는 문제들(남자이기에 여자이기에)을 여럿이서 함께 한다면 좀더 훌륭한 해결점들을 찾을수 있지 않을까요??

같이 할 사람????

여연은 다시 새로 깨어날 많은 새내기들과 함께 할려고 준비합니다.
어~~ 그런데 여자만 되나요? 라고 묻는 새내기들 없나요???
당연히 남자새내기들도 같이 해야죠..
앞에서도 말했듯이 여성문제는 여자들끼리 모여 쑥닥이며 푸는 것은 결코 아니예요. 관심있는 남여 새내기 여러분!! 여학으로 달려오셔요..
그리고 한가지 더!!!!! 현재 11개과에 여연이 있어요. 우린 학부로 들어왔는데...그러시는 새내기 있어요? 걱정할것 없어요. 모든 준비는 완료되어있으니까.. 문만 두드리시라구요!!!!!



탁아

탁아가 뭐하는 건데요?!?!

탁아소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학우들은 아마 꾀죄죄한 아이들과 다 쓰러져가는 시설, 고아원의 풍경을 생각하실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사들을 따라 동요도 배우고 여러가지 놀이도 친구들과 함께하는 유치원과 비슷한 환경... 이런 탁아소가 요즘 들어 많이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탁아소에서는 무엇을 하며 왜 늘어가고 있을까요?

산업화에 따른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증가시켰습니다. 예전보다 여러분의 주위에서도 (언니, 누나) 자기일을 갖고 생활하는 사람들을 그리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겁니다. 이런 변화는 교육 수준 향상으로 인한 여성의 자아실현을 위한 것도 한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경제적인 이유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 경제 활동 인구의 45.8% 가 기혼 여성이며, 또한 이들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이 단순 노동직으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부모가 모두 생업에 매달리게 됨으로 자녀의 양육과 교육의 문제는 저소득층일수록 심각합니다.

아이 기르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여성에게만 떠맡겨진 우리의 현실에서 아이 문제는 여성의 평생 노동권 확보에 큰 걸림돌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일하는 어머니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탁아소란 어머니가 일할 동안 아이를 맡아 보호의 역할과 교육의 역할 모두를 이행하는 곳입니다. 북한의 탁아소에 대한 선입견만 잔뜩 가진 우리에게는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제 탁아소는 우리 현실에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비영리 탁아소는요...

좁은 머리처럼 엉킨 멀집된 주택들, 서민들의 수만큼 형성된 상가들 끼고 좁은 소방도로에 다니는 차들, 주택 개발 붐에 의해 좁은 골목을 끼고 늘어있는 공사현장들...서민들이 멀집하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오락실, 만화방, 유흥업소들이 즐비한 이런 환경에서 어머니들은 마음놓고 아이들을 혼로둔 채 일터로 나갈 수는 없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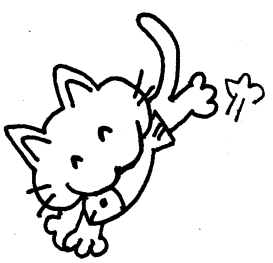
니다. 그렇다고 먼간 탁아소에 아이를 맡기자니 보육료가 언청나게니다. 비영리 탁아소는 이런 환경에서 성장해야 하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보호와 교육을 실현하고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 서민들이 부담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곳입니다.

디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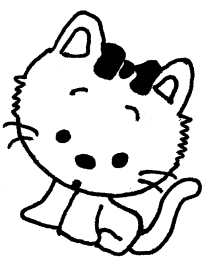
대구에는 비영리 탁아소가 세군데(디딤, 배꼽마당, 감나무골 아가방) 있습니다. 디딤은 그 중 하나로 서민 먹집 지역인 비산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산동은 1주택 다세대 가구가 많아 막노동부터 시작해야 하는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사글세에서 전세를 거쳐가는 곳으로 0-7세 아동을 가진 부모들이 많습니다. 디딤은 이 지역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탁아사업을 벌이는 시설입니다.

함께 해 보자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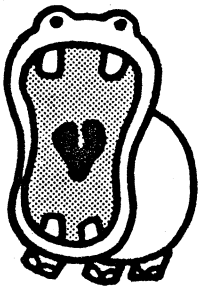
비영리 먼간 탁아소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난전이 바로 재정난과 인력난입니다. 아이들이 바르게 커갈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돕고 싶다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 학우님들을 기다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서너시간의 여유를 내실 수 있다면, 자원활동단으로 직접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겠고 마음은 있지만 여유가 없으신 분은 후원회에 가입하셔서 한달에 2천원 정도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인문여학은 새내기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책과 비디오



이런 책도 있었구나 와~~~

우 ㅎ **여성문제에 대한 것**

〈아름다운 성과 사랑을 위하여〉 동녘 최순덕

〈껍데기를 벗고서 3〉 동녘 편집부

〈여성 이야기 주머니〉 녹두 윤시춘外

〈새로 쓰는 성이야기〉 또하나의 문화

〈일그러진 성문화 새로 보는 성〉 동아일보사 한국성폭력상담소

〈세상의 절반, 여성이야기〉 우리교육출판부 우리교육

〈신데렐라 콤플렉스〉 나라원 콜레트다울링

〈여성학 강의〉 동녘 한국여성연구회

ㅎ우 **소설**

〈고삐〉 풀빛 윤정모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삼진기획 박완서

〈나는 나 1,2〉 청하 윤디뜨 안 베르그

〈후라이드 그린 토마토〉 성현출판사 패니 플래그

〈길찾기-소설로 보는 여성문제〉 동녘 송지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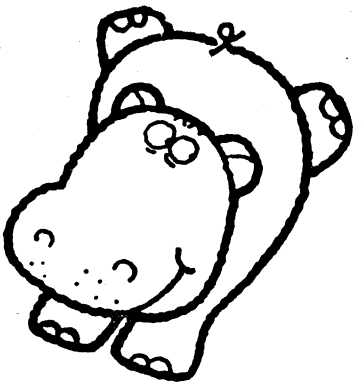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살림 양귀자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문예마당 공지영

〈자기만의 방〉 예문 버지니아 울프

〈길위의 집〉 민음사 이혜경

〈날마다 이혼당하는 여자〉 장원 김수련



요런 비디오는 꼬옥 봐야지~~~

재미있는 비디오／ 섹스, 거짓말, 그리고 비디오테이프 ／프라하의 봄／피아노／시애틀의 잠못 이루는 밤／해리가 샐리를 만났을때／장미의 전쟁 ／국두／크레이머 대 크레이머／뮬리엘의 웨딩／네프므와／까미유 끌로델／델마와 루이스／그대안의 블루／후라이드 그린 토마토／301, 302／네온속으로 노을이 지다／립스틱／개같은 날의 오후

광고

하나

인문대에는 여학생휴게실이 있는데...

인문대 2층 시청각실 맞은편에 여학생들을 위한 휴게실이 마련되어 있어요. 친구와 수다떨고 싶을때, 공부를 해야 하는데 늦잠자서 도서관자리가 없을때, 몸이 안 좋아서 쉬고플 때(고급원단의 침구도 있지롱), 점심도시락을 친구들이랑 먹을 때 등등 학내에서 마땅한 쉼터를 찾지 못한 여학생들은 마음껏 이용하셔요.

두울

여학생회의 위치

여학생회의 위치요???? 학생회 맞은편에 있죠...
1층에 음 고인과 과방과 110호 사이에
그래도 모른다구요
1층을 한번만 쓰윽하면... 문이 이뻐요...

세엣

여학생회에서는 도서대출이 가능해요.

특히 여성관련 도서가 많이 준비되어 있구요 다른 종류의 책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여학문을 두드리셔요...
앗 공짜에요. 공짜

네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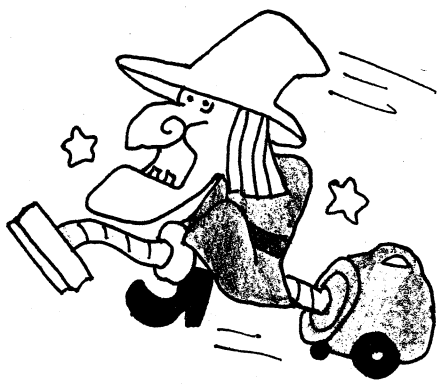
비상약품구비는 필수

어 배가 아프네, 머리두, 넘어졌어..잉~~~ 자 여학생회로 달려오셔요..

다섯

대동학교가 3월달에 있어요..

대동학교가 뭐냐구요????
와보면 알지!!!



담는시

여성임에 대하여

이나미

여성임은
남성보다 우수할 수 있음을 애써 증명하기 위함도 아니고
기꺼 남성과 평등함을 주장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여성임은 열성도 우성도 아닌, 하나의 개성이어야 합니다.
여성임은
때에 따라선 강자보다 더욱 강한 자일 수 있으나
그렇다고, 강자가 되기 위해 약자임을 부정함이 아닙니다.
여성임은
강자와 약자의 시비를 떠나 존재하는 바로 '나'이어야 합니다.